

OPEC (석유수출국기구)가 지난 2월1일부터 배럴당 18달러의 固定油價制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의 국제원유가격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제80차 OPEC총회에서 87년 상반기중 산유량을 1천 5백80만B/D로 감산하고, 고정유가제를 실시기로 결정한 이후 한때 배럴당 18달러 이상까지 상승했던 국제원유가격이 최근 다시 약세로 反轉하는등 국제석유시장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國際油價가 약세로 돌아선 것은 OPEC의 公示價요구에 대한 메이저(국제석유자본)의 미온적 반응과 OPEC산유량이 쿼터를 초과하고 있는데다 비수기를 앞둔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OPEC의 고정유가제실시와 국제석유시장 전망

현재 국제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① 고정유가제의 동향, ② 이라크의 석유정책, ③ 소비국의 재고동향으로 요약되고 있다.

우선 고정유가제의 성공여부는 가격차의 합리적 조정과 非OPEC의 협조가 최대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합의의 이행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계석유수요는 0.6% 증가에 그칠 전망이기때문에 세계석유수급의 균형여부는 OPEC가 어떻게 非OPEC 산유량 수준을 간파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몇몇 非OPEC산유국들이 固定油價制를 위해 감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앞으로 非OPEC산유국의 산유량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共產圈으로부터의 순수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OPEC의 감산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5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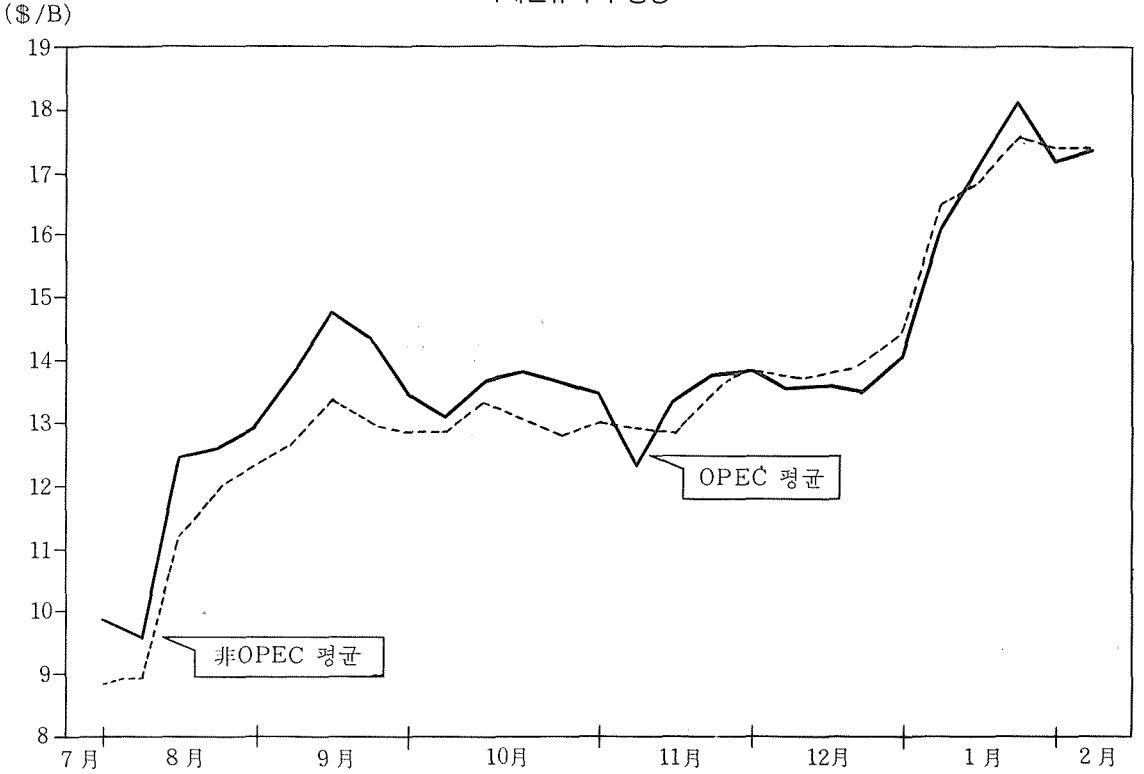
또 앞으로의 국제석유시장동향은 소비국 비축재고의 방출수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OPEC산유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비축재고량은 방출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 올 하반기에 가면 유가인하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OPEC산유량이 적을 경우, 재고방출을 유발시켜 공급꺾박상태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고변동을 제외한 올해 세계석유공급량은 하루 20만~1백60만 배럴 정도 감소되고, 이에 따른 타격은 OPEC가 입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의 상황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수요증가로 인한 혜택을 OPEC산유국들이 독점하여 非OPEC 산유량을 위축시켰었다.

전문가들은 금년 1/4분기중 2백40만배럴 정도의 재고방출을 예상하고 있다.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국제원유가격 동향



〈資料〉 에너지경제연구원

OPEC 주요 油種의 固定價格

(단위: \$ / B)

基 準 油 種			기 타 油 種			
油 種	가 격	價格差	油 種	가 격	油 種	가 격
Sahara Blend	18.87	+0.87	Zarzaitine	18.87	Murban	17.92
Minas	17.56	-0.44	Oriente	17.02	Zakum	17.82
Bonny Light	18.92	+0.92	Mandji	17.32	Um Shaif	17.72
Arab Light	17.52	-0.48	Kuwait Export	16.67	T-J Medium	16.72
Dubai	17.42	-0.58	Brega	18.67	Arab Medium	16.92
T-J Light	17.62	-0.38	Zueitina	18.67	Arab Heavy	16.27
Isthmus	18.07	+0.07	Dukhan	17.82	Arab Beri	17.87
평 균	18.00	-	Marine	17.67	Iran Light	17.50
					Iran Heavy	16.89

〈資料〉 Middle East Economic Survey, 22/29 Dec. 1986.

이는 정상적인 방출량보다 약 1 백만배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말부터 쌓여온 초과재고는

대부분 소진되어 2/4분기부터는 다시 비축으로 이어지고, 하반기에 들어서면 계절적 비축이 강화될 것으로 전

自由世界の 原油수급 전망

(單位: 백만B/D)

	1986					1987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需 要	47.2	45.6	45.6	47.0	46.4	47.9	45.8	46.1	47.8	46.8
非OPDC 공급	28.7	29.0	29.6	29.5	29.2	29.3	29.4	29.5	29.5	29.4
在 庫 變 動	- 1.6	+ 1.6	- 0.7	- 0.7	+ 0.6	- 1.5	+ 0.6	+ 0.7	- 0.5	- 0.2
OPEC 공급	16.9	18.2	16.8	16.8	17.8	17.1	17.0	17.3	17.8	17.3

〈資料〉 PIW. Dec. 1. 1986.

망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정책도 앞으로 국제유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현행 생산쿼터 결정과정에서 이탈을 선언한 이라크는 이미 1백50만B/D 수준 이상의 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 중반에 가면 2백만 B/D까지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란·이라크전쟁의 향배와 이라크의 산유량 수준이 국제석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최근의 국제석유시장은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 올해 政府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불확실성 위에 세워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올해 에너지정책은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신축성있게 짜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OPEC 고정유가제 실시에 따라 장기계약과 현물시장의 적정도입비율을 설정하고, 고정유가제 실시가 흔들릴 때에 대비, 시황에 대응한 정유사의 低價구매도입을 유도하며, 당초 60%로 잡았던 中東의존도를 여건변화에 따

라 60~70%선에서 신축성있게 운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탄력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원유가격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石油事業基金에 흡수, 조정한다던가, 특히 原油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및 관세의 인하로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는 것은 油價관리의 묘를 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原油가격처럼 불확실한 것은 없다. 국제석유시장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비경제적 변수가 서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호간은 『만약 油價 전망이 정확히 맞으리라는 가정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그 정책은 출발부터 틀린 정책』이라고 했다. 모리스 에델만교수는 油價가 올라가는 가정에서만 투자경제성이 입증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평한 바 있다. 결국 최선의 결정은 油價의 불확실한 변동을 최소의 손실로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을 갖춘 결정일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정직하고 겸허한 직무수행 자세를 확립하자